

식민지시대 '카페'에서 이루어진 춤에 대한 문화적 맥락 고찰*

-193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김 주 희**

-
- | | |
|-------------------------|-------------------------|
| I. 들어가는 글 | IV. 식민지시대 카페가 갖는 문화적 의미 |
| II. 식민지 시대의 문화 공간, '카페' | 참고문헌 |
| III. 문화 생산자로서의 여급과 춤 | Abstract |
-

“카페는 탄생한 순간부터 문화의 일부였다.”¹⁾

-크리스토프 르페뷔르-

I. 들어가는 글

'카페(Cafe)',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커피 등의 차를 마시고, 만남의 장소가 제공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1930년대 카페'는 지금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었다. 커피와 양주, 서양음식, 양담배 같은 서구적 기호물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한 매개적 공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구식 전문 공연극장과 같은 중앙무대가 아닌 주변부 무대로 재즈 음악이나 사교춤과 같은 공연행위가 이루어진 독특한 문화소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카페 외에도 도시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G00328).

** 성균관대학교 박사, sunjang33@gmail.com

1) 크리스토프 르페뷔르(2000), 『카페의 역사』, 강주현(역)(서울: 효영출판, 2002), p. 12.

형성되기 시작한 산업화 공간들은 데빠또(백화점), 료리집(음식점), 깍다방(다방), 영화관, 음악회장, 미용실 등이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근대 자본의 상징물인 동시에 퇴폐와 향락문화, 사치와 허영심과 같은 부정적인 시선을 지닌 기형적인 소비 공간으로 비춰졌었다. 특히 카페에서 추어진 춤과 같은 행위는 주로 유흥적 시각으로 부각되어져 왔다.

하지만 본고는 부정적인 시선 이전에 식민지적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통과 근대가 중첩되는 기점에 있어 피지배적 사회의 굴곡은 다양한 의미망을 형성하여 대립과 충돌, 흡수와 융화의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비적 공간 안에서의 유흥행위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한다. 오히려 카페의 유형은 식민지 현실의 혼돈과 갈등에서 오는 삶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카페를 쾌락적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닌 근대적인 모습으로 재현되는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전통적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곳으로 재인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당시 간단한 맨손 체조나, 운동, 사교춤 등과 같이 스스로 참여하는 신체활동을 경험한 신여성의 몸과는 구별되는 춤추는 여성의 신체 즉, 타자의 시선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여급의 춤추는 몸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카페라는 공간과 함께 여급에 주목하는 이유는 『삼천리(三千里)』에 기고된 “인테리-女給 哀史 女子高普(여급 애사, 여자고보) 마치고 엇재 여급이 되었노?”라는 글에서 유인한다.²⁾ 이글은 모든 카페 여급을 매음녀로 몰아세우는 것을 인식 부족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된 인식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삼천리』가 주최한 “여고출신인 인테리 기생, 여우, 여급 좌담회”에서 월급이 보통 100원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당시 고등교육을 받은 여교원의 경우 70-80원, 보험회사 일반 여직원이 30원이라는 월급을 받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당시 신여성들이 주장한 경제적

2) 『삼천리』 제4권 9호에 실린 원글은 “카페의 웨트레쓰라고 덤허 노코 매음녀니 천한 여자니하고 욕설함은 인식부족 ... 그들 중에는 훌륭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모순된 자본주의 사회와 대항하는 맹장도 있으며 생활난에 쪼들려 엇지 할 수 업시 못남성의 가진 폭역을 벗어가며 견대는 가엾은 눈물의 희로인도 잇다는 것” (이성은(2005). 삼천리식민지 근대 카페 여급의 정치경제학적 위치성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3, p. 52. 재인용.

독립에 대한 욕구를 여급들은 이미 채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이러한 근거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여급은 유흥제공자가 아닌 문화 전달자로 간주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무용학에서 보다 여성학이나 사회학 등과 같은 인문 사회계열에서 먼저 연구되었다.⁴⁾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카페 안에서 일어난 춤이나 신체담론 보다는 시대 전체적 분위기를 중심으로 조망하고 있다. 또한 여급의 춤을 섹슈얼리티를 부각시키는 호객행위나 유흥적 수단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짓고 있을 뿐이다. 무용학 분야에서는 중앙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최승희, 조택원, 배구자와 같은 신무용가에 대한 연구로 집중되어 있다. 카페여급들의 예술행위는 본격적으로 극장이나 공연장과 같은 메인무대(main stage)로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틈새공간에서 신문화를 가깝고, 빠르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확산, 소통시킨 주역들 외에도 주변공간과 소외되었던 인물들에 주목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으로 춤 연구에 접근하고, 다각적인 독해를 통해 학술적 연구 지평을 넓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카페 안에서 행해진 춤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함의하고 있는 성, 계급, 자본, 사회·문화적인 이데올로기 상황과 사회인식의 전형들을 '다르게 접근' 하여 문화정치 구조를 탐색한다는 의미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사료된다.

카페 안에서의 이루어진 춤 행위가 단순한 유흥에서 벗어나 굴절된 탈식민지적

3) 서지영(2005), 카페, 근대 유흥 공간과 문학, 『여성문학연구』 14, p. 74.

4) 식민지 시대 카페와 여급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지영(2003), 식민지 시대 카페 여급 연구-여급 잡지 『女聲』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9.

_____ (2005), 카페, 근대 유흥 공간과 문학, 『여성문학연구』 14.

이성은(2005), 식민지 근대 카페 여급의 정치경제학적 위치성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3.

우정권(2006), 30년대 경성과 동경의 '카페' 유흥문화 비교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6.

박숙영(2005), 근대문학과 카페, 『한국민족문화』 25.

서지영(2003)(2005)과 우정권(2006), 박숙영(2005)은 카페를 퇴폐적 에로스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등장하는 여급은 카페여급을 퇴폐적 성적 서비스를 하는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입장과 구별된다. 여급을 직업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정치 경제학적 맥락에서 조망하고 있는 이성은(2005)의 연구는 식민지 시대의 카페의 여급이 지닌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면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문화공간으로 카페를 집중 조망하고, 카페에서 춤과 같은 예술행위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행위였음을 재조명하기 위해 『신여성(新女姓)』, 『삼천리』, 『여성(女聲)』, 『별건곤(別乾坤)』 등 과 같은 당시의 잡지에 기고한 글과 신문기사, 삽화 그리고 최근 관련된 2차 연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논제에 접근 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카페가 유입된 경로를 되짚어 보고, 그 공간이 함의하는 의미를 동서양이 혼재된 장소와 상업예술무대 공간의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카페 안에서 문화 생산자였던 여급에 대해 그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규명해보고, 그들이 행한 춤과 여급의 춤추는 신체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4장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카페가 갖는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본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당시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는 시대상의 발음과 현재 사용되는 표준어를 함께 사용함 밝힌다. 그 당시의 표기를 따르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가늠해보고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II. 식민지 시대의 문화 공간, ‘카페’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근대적 소비 공간은 단순한 신문물의 수용을 넘어 오락, 교양, 정치, 문화의 기능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기능은 일상의 공간에서부터 당대인의 연애관, 가치관, 삶의 방식 등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간 중 카페는 어떻게 유입되고 보급되었는지, 또 어떤 역할과 외형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동서양이 혼재된 문화 공간

카페가 탄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유럽대륙에 수입된 커피원두에 기인한다. 커피는 1644년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터키산 원두가 처음으로 들어간 이후 루이 14세의 궁전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사교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인기 식품이 되었으며, 상인들은 커피원두를 판매하기 시작했다.⁵⁾ 원두 판매 뿐 만 아니라 커피

5) 크리스토프 르페뷔르(2000), pp. 17-20.

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업태는 영국을 기점으로 확산된다. 특히 르네상스 이후로 상류층 인사들의 사교장이자 예술문화, 학문의 산실인 '살롱'에 뒤를 이어서 18-19세기에는 중산층 서민까지 흡수하여 담론공간의 역할을 하였다. 카페는 '아름다운 곳'을 뜻하는 신조어인데, 호화로운 실내장식을 갖춘 외형적 모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비슷한 공간으로 주로 서민들이 드나들었던 카바레(cabaret), 트리포(tripot, 도박장), 타피 프랑(tapis-franc, 뒷골목 술집), 담배방(담배를 피우면서 값싼 술을 마실 수 있는 곳) 등이 있다.⁶⁾ 카페가 지방 곳곳에 문을 열면서 점차 폭넓게 중산층과 서민층의 대중화된 장소가 되기 시작하자 서방의 대표적인 사교, 유희, 및 정치적 여론의 담론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메이지 시대(1868-1912)때부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의 경우 카페문화가 메이지 말년부터 다이쇼 시대(1912-1926)에 급속히 확산된다. 다이쇼 말기에서 쇼와(1926-1989) 초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호황이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1929년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 대공황의 여파까지 더해져 일본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페가 유행된 요인은 대중이 스스로 문화구조에 직접 기여하거나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영화, 축음기, 댄스와 같은 서구식 오락의 수단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⁷⁾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좌익과 우익이 충돌하는 혼란한 상황속에서 함께 일어나게 되는 세기말적 퇴폐적 문화 현상의 발현으로 파악할 수 있다.⁸⁾ 유럽에서의 카페는 커피만을 마시는 가게이지만, 일본에서의 카페는 서양 요리점, 낫다점(喫茶店, 찻집), 주점의 의미가 함께 포함된다. 술과 함께 서양식의 음식메뉴를 지닌 경양식도 함께 취급하고, 호명(呼名)에 있어서도 레스토랑과 혼용하여 카페를 부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취급 식품의 변화 뿐 아니라 게이샤가 풍류와 접대를 도와주는 요리집의 모습이 혼재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근대적 방식과 전근대적 방식이 재구성되어 새로운 유희공간으로 변모된 것이다.

일본식의 유희문화는 식민지 조선에 밀접한 연장선 아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앞의 책, p. 24.

7) 이노우에 마리코(2000), 근대 일본 카페 여자종업원의 시선과 '모던 걸'의自我성립, 『미술사연구』14, p. 232.

8) 한국여성문학학회(2008),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서울: 소명출판), pp. 302-303.

1919년 경성에 최초로 등장한 카페는 1910년부터 1920년대까지 대표적 유흥 공간으로 기생이 함께 자리하는 요리집을 대체하게 되면서 1930년대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 시기나 방식은 비슷하지만 커피만을 파는 킥다점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식민지 조선에 유입됐다는 점이 다르다.⁹⁾ 당시 경성의 중심지는 청계천을 경계로 해서 '남촌(南村)' 과 '북촌(北村)' 으로 나뉘었다. 조선인이 주로 거주하던 종로통 부근은 북촌이었고, 일본인 상가와 주택가가 중심을 이루던 남산 기슭과 명치정(明治町, 지금의 명동)이 남촌으로 형성되었다. 남촌은 미쓰코시 백화점(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자리)을 중심으로 서구식 웨치레쓰(웨이트리스)들이 있는 카페가 주종을 이뤘다. 반면, 종로 낙원동 부근의 북촌 유흥시설에는 주로 조선 기생이 나오는 료리집이 많았다가 점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카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낙원', '목단', '엔젤', '평화' 와 같은 카페가 생겨났다.

한국인이 최초로 연 카페는 「춘희(椿姬)」(1928), 「숙영낭자전(淑英娘子傳)」(1928) 등의 영화를 감독한 이경손이 1927년 종로 관훈동에 세운 '까까듀'¹⁰⁾이다. 곧 이어 1931년 제일유학파 이순석은 지금의 소공동 지역(프라자 호텔 뒤편으로 추정)에 '낙랑(樂浪)과라' 를 문 열었다. '까까듀' 의 이경손 감독은 직접 텍시도를 입고 차를 나르는 하이칼라였다고 전해지며, 영화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영화배우, 화가, 문인, 동경 유학생 등이 많이 드나들었다고 한다.¹¹⁾ '낙랑과라' 또한 구보 박태원, 김기림, 이상 등과 같은 소설가들이 자주 드나들었으며 매주 금요일마다 전시회나 문학의 밤이 열렸다.¹²⁾ 그 외에도 일본미술학교를 졸업한 배우 김용규와 심영이 운영한 '멕시코', 음악평론가 김관의 '엘리샤', 여배우 북혜순의 '비너스' 등이 있다.¹³⁾

외형적 모습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신동아』(1932)에서는 내부 장식은 서구식과 일본식이 혼합된 분위기이며, 위스키와 일본술(아사히, 삿포르 맥주, 사케)를 팔며 재즈와 블루스, 유행가, 신민요 등의 다국적 음악이 흘렀다고 전한다. 또한 『조

9) 우정권(2006), p. 343.

10) 참고문헌에 따라 '까까듀', '카카듀' 로 혼용되어 기입하고 있다.

11) 박숙영(2005), p. 40.

12) 윤고은(2011), 소설과 현실이 同行, 구보의 걸음으로 서울을 훑다, 『월간중앙』, (2011년 423호), p. 227.

13) 이경재(1993), 『다큐멘터리 서울定都 六百年』(서울: 서울신문사), pp. 24-25.



〈그림 1〉 카페¹⁵⁾

선일보』(1925)에서도 “전기불이 휘황한 이층집 카페...”¹⁴⁾로 기술하고 있다. 『조선일보』(1934)에 실린 삽화를 보면 치마길이가 짧은 한복에 뽀족구두와 클러치 백, 머플러를 두른 여성 뒤로 영어로 크게 쓴 ‘CAFE’라는 간판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미뤄 봤을 때 이국적이고, 화려한 인테리어를 지니고 있으며, 이미 언어의 혼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대중적 공연예술 공간

카페를 대중적인 문화공간으로 보는 이유는 3가지 요인에서 유인한다. 첫 번째는 접근성과 경제성에 근거한다. 협울사(1902), 원각사(1908), 광무대(1912) 등의 서양식 공연극장이 설립된 이후 다양한 극장에서 많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프로시니엄 구조의 중앙무대는 오픈된 마당형 극장 구조에 비해 접근성 면에서 떨어진다. 즉 서양식 극장은 행위자와 관람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반면에 전통적인 한국식 공연장은 일정한 시설 없이 필요할 때 마다 천막이나 명석 등을 깔아 무대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대구조는 관객과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없다. 무대와 객석(테이블)의 간극이 좁은 카페 무대의 경우 전통 공연장과 같이 그 경계가 모호하다 할 수 있다. 관람자나 공연자의 구분이 적은 마당식 공연은 관객과의 소통이 용이하여, 공연 중간 중간의 참여가 자유롭다. 카페 안에서 이뤄진 공연 또한 손님이 함께 공유하거나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카페의 접근성은 교육적 수준이나 문화적 취향이 크게 고려되지 않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극장에서 소비되는 금액에 비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카페를 대중적인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한국유성영화 중 가장 오래된 영화「미몽」(1936)을 보면, 주인공 애순이 당시 신무용가로 활동하던 조택원의 공연을 보러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녀가 관람

14) 신명직(2003),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서울: 현실문화연구), p. 32.

15) 『조선일보』(1934. 1. 1).



〈그림 2〉 카페¹⁶⁾

한 공연은 조택원의 「만종」이라는 작품으로 밀레(Jean Francois Millet)의 그림 「만종」에 영감을 받아 조선풍의 춤으로 안무하고 직접 출연한 작품이다. 애순은 진지한 관람 태도로 신무용 장르의 공연을 즐기는데, 그녀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문화적 취향과 교육적 수준,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제가 가능한 영화가 등장함에 따라 원본의 가치를 갖는 공연예술은 고급소비재로 변모하게 된다. 여기서 고급소비재라는 것은 쉽게 획득하거나 빠른 시간 안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은 그에 관한 교육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즐길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것은 오랫동안 교육(경험)이 유지됐음을 의미한다. 유지됐다는 것은 경제적 지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된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서양식 공연장이 쉽게 교감하고, 접근할 수 있는 카페의 무대 보다 대중성이 결여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피지배계층의 동질화 심리가 작용한다는 점이다. 동질화 심리는 1911년 4월에 마츠야마 쇼조가 긴자(銀座)거리에 연 '카페 프렐탕(Cafe Printemps)'으로 설명이 된다. 쇼조는 '사람들이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에 살아보았거나 가본 적이 있는 예술가, 작가, 가부키 배우, 비평가, 정치가와 같은 엘리트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멤버십 체제로 카페를 운영한다.¹⁷⁾ 이 카페는 개장 초기에는 인기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4개월 후에 문을 닫게 된다. 인기 있었던 요인을 분석해 보면 경험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선별되어 부여됐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카페 프렐탕'의 인기가 하락한 원인을 다시 살펴보면 카페의 일반성에 있다. 경제성과 접근성으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카페는 더 이상 특별한 공간이 아닌 것이다. 그 특별한 공간은 대중적으로 보편화되면서 '나도 그들과 같다'라는 심리를 내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중의 동질화 심리이다. 다수의 무리 속에 포함되면서 구별이 해제되고, 경계는 사라진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16) 『조선일보』(1931. 6. 26).

17) 이노우에 마리코(2000), p. 233.

오리지널의 유럽식 카페를 경험을 하지 못해도 카페에 감으로써 실재를 대체하여 모방문화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 기회의 부여는 피지배계층의 입장에서 잠시나마 지배계층과 동질화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타문화를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 전달자가 있다는 점이다. 앞장에서 언급했다시피 서양의 카페는 원래 커피를 마시는 장소였으나 일본을 거쳐 들어오면서 게이샤들의 기예를 보며 술과 요리를 함께 즐기는 요리집의 전형이 혼합된다. 카페의 여급들이 보여준 예술행위는 기생의 기예와는 배움의 방식부터가 다르다. 게이샤의 경우 권변과 같은 기생조합에 소속되어 예의에서부터 악기, 노래, 춤 등의 교육과정을 오랜 시간 수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카페의 여급은 교육기관 같은 곳에서 양성되지 않으며, 도제식의 교육과 조합에도 벗어나 있다. 오히려 이들의 배움의 경로는 서구 근대문화를 일찍 경험한 유학생, 예술인, 문인들과의 교류와 신식교육을 배운 여학교 출신들이 직업군으로 대거 흡수된 것에 기인된다. 이러한 식민지 시대의 여급은 카페라는 열려 있는 공간 안에서 서구 문화예술을 새롭게 재현하고 확산, 소통시키는 산과 역할을 하였다 할 수 있다.

III. 문화 생산자로서의 여급과 춤

1911년 8월에 긴자거리에 ‘카페 라이온(Café Lion)’과 ‘카페 파우리스타(Café Paurist?)’가 문을 열게 되는데, 이 중 ‘라이온’에 시종드는 여자 종업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¹⁸⁾ 이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배운층에 속하는 여성들이었으며, 현대적인 직업 중 하나로 중산층 수입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기록된다. 경성의 경우 문화혼합물이었던 일본 카페가 그대로 전이되면서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된다.

18) 앞의 책, p. 234.

1. 여급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성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계속되는 취업난은 남성 보다 여성에게 고용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 받은 여성이 정당한 댓가를 받고 생계를 유지 할 만큼의 직업은 더욱 많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식민 문화정책이 가속화되자 당시 조선인들이 운영한 영화산업은 실패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여배우들은 생계를 위해 여급으로 이동하게 된다. 『별건곤』(1932)에 실린 “조선영화의 몰락과 동시에 여배우들의 몰락이라 볼 수 있게 업다. 따라서 서울의 카페라는 것은 몰락 녀배우의 수용소가 되고 말 것인가?”¹⁹⁾란 글을 보면 직업 전환이 얼마나 많이 이뤄졌는지 제목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1934)에 녹안경(綠眼鏡)이란 필명으로 기고한 ‘카페여급 언파라이드’를 참고해보면 종로 부근의 유명한 여급 대부분이 여학교 출신의 인테리 여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종로 유명카페(낙원, 목단, 평화, 엔젤)에서 일하는 일급여급 8명 중 여급 4명(김보신, 조경희, 김명순, 김일송)이 여배우 출신이라 말한다.²⁰⁾

여급으로의 직업 전환은 여배우 뿐 아니라 전문학교 이상 졸업한 교사, 문인, 회사원 등의 출신도 있었다. ‘마리꼬’ 라는 예명으로 소개되는 낙원카페의 여급 김명순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후 1920년대 당시 문단에 데뷔한 신여성 김명순으로 추정된다.²¹⁾ 이들이 단순한 유흥 제공자가 아닌 직업여성으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음은 당시 여급들이 모여 『여성』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상승시키려는 노력에서 볼 수 있다.

잡지 발간 뿐 아니라 이들은 1930년대 대표적인 대중 잡지에 여급에 대한 편견에 변화를 촉구 하는 글을 여러 차례 신는다. 여급 강정희가 『신여성』(1932)에 기고한 “여급들도 직업부인인가” 따르면 “직업이란 사람이 생활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제적 활동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직업의 특수성을 주장한다.²²⁾ 또한 “일본의 내무성 내각 통계국에서는 그 직업 분류 중에 명료하게 여급을 여자 직업 중에 헤이고 잇스며 그 외에, 경성직업소개소에

19) 이성은(2005), p. 55.

20) 서지영(2003), p. 66.

21) 앞의 책.

서도 여급의 항목이 있다”고 언급한다. 여급을 직업으로 분류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카페의 여급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엄연한 노동의 한 직업군임을 주장한다. “사실 여급에는 매춘적 행위에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만연한 몰이해에 기인한 오진을 받고있는 괴로운 직업”이라고 말하고 있어 매춘부로 매도하는 사회적 시선에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여급 장영순도 『신여성』(1933)에 “내가 여급이 되기까지-이 직업을 멸시마시요”²³⁾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고, 카페 ‘엔젤’ 소속의 한 여급의 경우 “나는 웨트레쓰하나 자체를 조금도 붓그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직업도 있겠지만 현재의 내 입장으로서는 다른 직업보다 이 직업이 제일 적당하기 때문이니까”²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식민지 사회의 자본주의 아래에서 여급이란 직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그 정당성을 스스로가 부여하고 있다. “카페-서 도라가면 선량한 가정이 되고 또 학생도 된다. 그들은 현재 외국어학교를 다닌다. 그는 언제나 과거에 철업시 날뛰든 때 일을 후회하면서 압날의 힘을 양성한다고, 그의 리면에는 남보다 더 한 고민과 비애가 숨어 있스나 세상이란 엇더타는 것을 파악한 節子(절자)양은 우슴과 울음을 푹푹히도 분간하고 있다한다”²⁵⁾ 이글에서는 고단한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생계유지가 가능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공부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신들의 직업을 경제적 맥락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급 수입을 살펴보면 『삼천리』 좌담회에서 밝힌 금액 100원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적힌 간호부, 여교원(보통학교), 여기자, 유치원 보모, 여사무원, 교환수, 여점원, 여차장, 직공의 월급을 통틀어 가장 많은 금액이다.²⁶⁾ 또한 1930년 경성부의

22) 강정희(1932), 『신여성』 10월호.

23) “내 직업을 사랑하자 하며, 다시 노래를 부르며 손님압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급인 우리들도 이 직업이 신성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바입니다. 노래를 팔다, 술을 팔고, 우슴을 옷는 이직업이 신성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사회,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우리로써는 엇지할 수업시 직업을 사랑하고, 세상 인테리들에게 비판을 듣는 것입니다”, 『신여성』 1933년 3월호, 서지영(2003), p. 53 재인용.

24) 『삼천리』 1932년 제4권 9호 “인테리-女給 哀史 女子高普 마치고 엇재 여급이 되었노?-엔젤편, 생활난에 부닥겨서 워트레쓰가 된 金鈴蘭양과 金松錦”

25) 앞의 책.

일독회가 고소득자인 이들에게 여급세를 징수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1932년 3월 20일 신의주부 의회는 이 안건을 가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미 직업으로서 인정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²⁷⁾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수익구조는 직업군을 이동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1934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웃음 팔이 여급이 경기에만 참천륙백명- 사회의 이면을 말해주는 이수짜, 작년 보다 700명 증가”²⁸⁾에서 빠르게 증가한 여급의 숫자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겨우 1930년대에 여성들로만 조직된 38개의 시위 중 도쿄의 가장 유명한 플로리다 댄스 홀과 같이 카페 여중업원과 유사한 연예사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파업을 조직하기도 했다.²⁹⁾ 파업을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단체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 형태는 한국에서 또한 비슷하게 이뤄졌다.

문학작품에는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episteme)를 담게 되는데 1930년대 소설에도 여급들의 모습이 확인된다. 이상의 『지주회시』,³⁰⁾ 염상섭의 『만세전』,³¹⁾ 김유정의 『따라지』,³²⁾ 유진오의 『나비』³³⁾ 속 여급들은 지식인 남성들의 세대적 좌절감과 비애를 고스란히 받아주는 자유연애의 대상자였으며, 무기력한 애인의 생계를 돕는 조력자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다. 지식인 남성과의 자유연애는 일부일처제 결혼제도

26) 서지영(2003), p. 51.

27) (1932. 3. 15), 조선 최초의 여급세를 징수, 『동아일보』, 3면.

(1932. 3. 20), 문제의 여급세 징수기로 가결, 『동아일보』, 3면.

28) (1934. 6. 18), 웃음 팔이 여급이 경기에만 삼천륙백명, 『동아일보』, 3면.

29) 이에우에 마리꼬(2000), p. 238.

30) 이상(1910-1937)의 『지주회시』(1936)에서 주인공 ‘오’ 군은 돼지 같은 존재로 묘사되어 있으며, 카페 여급인 ‘나’의 아내는 거미 같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31) 염상섭(1897-1963)의 『만세전』(1922)은 주인공 일본 문화 유학생 이인화를 뚜렷한 목표 의식 없이 돈이 생기면 카페에 가서 여급 시즈코와 즐기지만 한 인물로 묘사한다.

32) 김유정(1908-1937)의 『봄과 따라지』(1936)에 등장하는 여급 아끼꼬는 ‘톨스토이’라는 별명의 남자를 짝사랑한다. 하지만 이 남자가 어려움에 처하자 아끼꼬는 앞장서서 도와주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하다. 작가는 여급의 고단한 삶과 소비사회의 상품으로 전락한 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33) 유진오(1906-1987)의 『나비』(1940)는 전문학교 졸업자지만 취직자리 하나 못 구하는 무능력한 남편과 여급으로 일하는 아내의 이야기이다. 남편은 카페에서 접대하는 부인에게 무관심하다. 오히려 그녀가 손님들에게 받아 온 팁을 갖고 그 역기 카페를 전전하며 돌아다니지만 부인 역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결혼제도 사회에서는 불륜의 대상으로 머무는 타자적 위치를 드러낸다. 또한 이들의 유희적 만남에서 여급이 성적인 권리 주장 할 수 있는 것은 매음녀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여급의 사회적 위치는 신여성과 같이 신학문을 익힌 엘리트 계층이지만 그들과는 분리된다. 그리고 서구 취향의 소비욕구를 향유하고 자유연애가 가능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제도권 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자신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들의 에로티시즘은 상품화되지만 성적 대상으로 전략한 매춘부, 기생과는 명확히 다른 근대적 직업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이 갖춘 경제적 자립 능력은 직업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준다.

2. 카페에서 춤추는 여급의 신체

근대적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패션일 것이다. 봉건주의 조선사회의 쓰개치마나 버선, 긴 한복의 '감춤'은 짧은 스커트, 뽀족구두, 핸드백, 서양식 모자, 기모노나 양장, 에이프런의 '드러냄'으로 변화된다. 헤어 스타일 또한 파마머리 혹은 보브(bob)형의 단발머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패션변화는 여성 신체에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 또 다른 변화로는 신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점이다. 과학담론이 발달함에 따라 건강한 육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식은 운동이나 춤을 통해 근대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시 대중음악과 함께 유행하기 시작한 춤은 블루스(Blues), 재즈(Jazz), 레뷰댄스(Revue Dance), 찰스톤(Charleston) 등이 있다. 특히 '찰스톤'은 미국에서 1910년대 이후 흑인들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던 재즈음악에 맞춰 추던 춤이다. 『조선일보』 1930년 11월 20일자 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째스-찰스톤-1930년의 마지막 달이 갓가워 와도, 찰스톤이 대 유행이다.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를 가리켜 말하되, 『그 여자가 찰스톤을 아조 멋있게 추드군요...』 얼굴의 선택 육테미의 선택보다도 모던 걸, 모던 보이들은 이 『찰스톤』 선수를 찾는다. 『닉그로』도 조타. 아모래도 조타. 찰스톤이 다 이 리하야 1931년에는 흔들기 조하하는 남녀들은 집을 『용수철』 우헤 짓고, 용

www.kci.go.kr

수철로 가구(家具) 맨들고서, 『찰스톤』 바람에 흔들다가 시들 모양- ...”³⁴⁾

이글을 통해 한해가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는데도 춤만 출 정도로 큰 유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남 미인의 외모나 아름다운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찰스톤’을 능수능란하게 잘 추는 것이 인기의 척도였다. 그리고 ‘『니그로』도 조타. 아모래도 조타’는 흑인이든 누구든 춤만 잘 춘다면 인종 따위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춤 잘 추는 파트너가 선택의 제 1 요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직접 상대를 고르거나, 이상형의 요건을 제시하는 모습은 적극적인 주관과 연애관, 취미관을 피력하는 근대 여성의 모습이다.

춤을 더 리듬감 있게 추기 위해서 ‘용수철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춤이 갖는 특성이 탄력적인 활력과 경쾌한 움직임에 있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찰스톤 춤은 끊임없이 스텝을 밟으며, 바운스 동작에 음악을 타야한다. 서양에서도 찰스톤 춤을 실용적으로 추기 위해 짧은 플레퍼 룩과 단발머리 위에 챙이 짧은 클로슈 모자를 착용하였다.

“페인트와 세멘트로 장식한 널다란 벽의 선과 색채를 은은히 비추는 전등의 조명, 이 속에서 흘러 나오는 재즈의 멜로디! 그 템포에 역개를 맞추어 움직이는 웨트레스의 예로 특한 동작! 단발녀의 발 목 숫까지 내려치진 그로테스크한 스카드의 이트! 그의 두눈동자는 마치 리뷰들 보는 세와 가티도 한 찬속도로 구울렀다”³⁵⁾

당시 무대모습은 카페 공간에서 가장 넓은 벽이 있는 곳을 페인트와 세멘트로 장식하여 무대공간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관객과 공연자의 구분이 명확한 프로시니엄 무대에 비교했을 때 카페의 무대는 그 경계가 흐릿한 전통식 공연장 구조에 더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벽선과 색채를 은은히 비추는 전등’은 이 무대가 서양의 공연전문 조명기구가 아닌 전등으로 대체하여 나름의 무대 공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은은한 전등’ 조명은 전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에로스적 환경을 만들어 카

34) 신명직(2003), pp. 152- 153.

35) 강약한(1932), 풍트, 카페, 『조선일보』(1932. 4. 29).

(서지영(2003), p. 56 재인용).

페 안에 흐르는 재즈 선율과 무희의 춤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설정한다.

‘템포에 역개를 맞추어 움직이는 웨트레스의 에로틱한 동작’은 능숙하게 어깨로 리듬을 맞추는 춤추는 여급의 모습이 그려진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어깨가 에로



〈그림 3〉 카페³⁶⁾

틱하다는 것은 그 자세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한 예각을 이용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강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스카드의 이트’라는 표현은 일본의 소비산업의 데카당스(Decadence)적 사회풍조에서 유행어처럼 변진 ‘에로, 그로, 년센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현란한 비대칭의 치마 스커트를 뜻한다. 이런 치마 모습은 〈그림 3〉에서도 볼 수 있다. 『별건곤』(1930)에 실린 김화선의 「카페 판다라이」를 보면 당시 카페의 전경이 더욱 자세히 묘사된다.

「카페 판다라이」

불
불 불
불

色彩澄아래 움직이는 風景畫.

파-란 페퍼-민트속 그려진 幻想을
짜스팬쓰로 흐려마리는
루주 어렵분 입을 가진 웨이트리스.

이쪽 커-텐 밋헤는
짜-르간 빅타이 머리긴 청년한놈
함부로 피아노의 키-를 부들기고

저쪽 테-블에선
술醉한 ××·××두사람
오늘도 쫓업는 討論에 밤을 새이는구나.

36) 『조선일보』(1932. 1. 20)

1연의 '불 불 불 불 色彩澄(색채정)아래 움직이는 風景畫(풍경화)'은 형형색색의 조명이 마치 풍경화같이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연 2행에 나오는 '짜스켄스로 흐려바리느'는 웨이트리스의 춤의 종류가 재즈댄스였으며, 춤을 수식하고 있는 '파-란 페퍼-민트속 그려진 幻想(환생)'은 그 춤이 사람들을 홀리듯 아찔함과 몽환적임을 나타낸다. '루주 어렵분 입을 가진 웨이트리스'는 관객(글쓴이)의 시선이 루주(립스틱) 바른 예쁜 웨이트리스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급의 신체가 '용인된 시선' 즉 관찰의 대상으로 진열된다는 것이다. 용인된 시선은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이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수락하는 시선으로 관찰자와 대상과의 권력관계를 나타내준다고 말한다.

3연의 '빠르간 넥타이 머리긴 청년한놈 함부로 피아노의 키-를 부들기고'라는 표현을 통해 다시 한번 카페의 무대가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한 대중적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양에서부터 카페가 담론의 장(場) 역할을 한 것과 같이 식민지 조선에 건너온 카페 또한 그러한 기능이 남아 있음을 '저쪽 테-블에선 술醉(취)한 ××·××두사람 오늘도 쫓업는 討論(토론)에 밤을 새이느구나'에서 볼 수 있다.

IV. 식민지시대 카페가 갖는 문화적 의미

본 연구는 1930년대 카페를 새로운 문화 창출 공간이자 식민지 시대의 변민을 있기 위한 곳으로 재조명하고, 춤추는 여급의 사회적 위치를 경제성과 그들의 행위를 통해 다시보기 하였다. 그 결과 카페는 여급과 그 곳을 찾았던 지식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여급에게는 향락문화를 매개하여 자본주의 물질욕망을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이 공간 안에서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입은 이들을 경제적 주체자로서 독립성을 부여하게 해주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들의 자유연애는 감정의 자율권을 갖는 동시에 신여성성이 갖는 지위에는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카페 여급들이 모방하는 서양화된 외형은 식민지적 발전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자본의 권력과 식민의 권력 아래에 여급들의 신체는 피지배 계층이 시선의 대상화에 머물 수밖에 없는 파편화

된 모습이자 유희의 희생물로 전락한다.

하지만 이들이 지닌 경제력과 직업의식, 인텔리직 지식은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고 받아들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화가 여성의 경제 활동과 사회 진출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라 한다면 더더욱 이들의 사회 참여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사회 속에서 여성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들은 환멸과 환락의 행위로 규정된 카페에 혼재된 문화를 양성하는 문화 생산자였음은 부인 할 수 없다. 또한 춤추는 여급의 몸 안에는 시대적 이데올로기의 규칙과 질서, 문화가 춤을 통해 재현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지식인들에 카페라는 공간은 폭력과 억압이 난무한 제국주의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시대의 고단함이나 정치적 흔적을 소거하고 휘발시켜 느슨한 태도로 타인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불안정한 경제 구조 속에서 식민지 피지배계층이 유일하게 주문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장소며,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이곳에 지식인들은 서로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여급들이 제공하는 육체적 쾌락을 탐닉할 수도 있는 동시에 신문화를 쉽게 만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1930년대 경성의 카페를 살펴보는 것은 틈새문화의 흔적 찾기였다. 이와 같이 사회 문화적 담론을 구성하는 여러 시각을 학문적 소통을 통해 도출하는 방법은 각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학술적 환경을 도모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 주제를 확보하고,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친숙한 공간 속에 춤을 구성하는 몸은 움직임 속에서 사회, 정치, 역사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기호화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열린 주제로 제공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작업이 예술의 대중화에 다가서는 일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신명직(2003).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서울: 현실문화연구.

이경재(1993). 『다큐멘터리 서울定都 六百年』. 서울: 서울신문사.

www.kci.go.kr

- 크리스토프 르페뷔르(2000). 『카페의 역사』. 강주현(역). 서울: 효영출판, 2002.
- 한국여성문학학회(2008).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서울: 소명출판.
- 박숙영(2005). 근대문학과 카페. 『한국민족문화』, 25: 24-64.
- 서지영(2003). 식민지 시대 카페 여급 연구-여급 잡지 『女聲』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학』, 19: s31-73.
- _____ (2005). 카페, 근대 유희 공간과 문학. 『여성문학연구』, 14: 65-88.
- 이노우에 마리코(2000). 근대 일본 카페 여자종업원의 시선과 '모던 걸'의 自我성립. 『미술사연구』, 14: 231-250.
- 이성은(2005). 식민지 근대 카페 여급의 정치경제학적 위치성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3: 47-75.
- 우정권(2006). 30년대 경성과 동경의 '카페' 유희문화 비교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6: 337-356.
- 장영순(2008). 1920년대 여성문화와 미디어의 시선-'모던 걸'의 신체 표상과 젠더-. 『일본학회』 74, 291-308.
- 윤고은(2011). 소설과 현실이 同行, 구보의 걸음으로 서울을 훑다. 『월간중앙』, (2011년 423호), 222-229.
- 강약한(1932. 4. 29). 콩트, 카페. 『조선일보』
- (1932. 3. 15). 조선 최초의 여급세를 징수. 『동아일보』, 3면.
- (1932. 3. 20). 문제의 여급세 징수키로 가결. 『동아일보』, 3면.
- (1934. 6. 18). 웃음 팔이 여급이 경기도만 삼천륙백명. 『동아일보』, 3면.

논문투고일	2012년	2월	15일
심사일		2월	21일
심사완료일		3월	1일

Abstract

A Study on Cultural Text Dance of Cafe in Colonial Korea

- Mainly During the 1930s in Seoul -

JooHee Kim

Ph. D. of Danc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on cultural text dance of cafe in Colonial Korea. Having been produced in time when the nation wa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cultural space illustrated the society experiencing confliction between its traditional ideology and western culture introduced. Cafe is western-styled dance theater, a place extended from the social reality, played the role to help break the rules of the total institution.

Having lost her identity through the mortification of self, waitress went to the stage of reorganization of individual, to be injected a new identity while watching a dance performance of cafe. 1930's of cafe in colonial Korea, the reorganizing of individual process while watching dance performance seemed resistance to what the institution requested her to do.

The focus of this analysis is same the next. first, cafe in Colonial Korea is new cultural space. second, waitress' role is western culture introducer.

keywords: Cafe(카페), Colonial Period(식민지 시대), Culture Space(문화공간),
Waitress(여급), Dance(춤)